

“종교 분쟁없는 종무행정해달라”

자승 스님, 나종민 문광부 종무실장 예방서 당부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신임 종무실장은 10월 14일 취임 후 첫 종교계 예방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직은 정부의 종교 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나종민 신임 종무실장은 1988년 교통부 근무를 시작해 1997년부터 문화부와 관계 단체 업무에 종사했다. 문체부 대변인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직을 지낸 데 이어 10월 8일 종무실장에 임명됐다.

자승 스님은 예방자리에서 “불교계만 담당 하는 것이 아닌만큼 다양한 종교의 일에 관심을 갖고 종교간 분쟁이 없도록 골고루 형평성 있게 업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예방자리에는 총무부장 정만 스님, 사서실장 심경 스님, 문화부장 헤일 스님 등이 배석했으며 이병두 종무관도 함께 예방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나종민 종무실장(사진 오른쪽 세번째)에게 종교화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수행가풍으로 보살심 이끌어내 결집을”

진각종 회당대중사 열반 51주기 추념불사 봉행

진각종(통리원장 회정 정사)은 10월 16일 진각문화전승원 1층 무진설법전서 진각성존 회당대중사 열반 51주기 추념불사를 봉행했다.

회정 정사는 이어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최우선의 과제는 더 늦기 전에 참회하고 창종이념과 수행의 가풍을 다시 되살려 대승보살심을 이끌어내고 결집하는 일”이라며 “그 시적이 되는 오늘 추념불사의 단 역사의 분수령이 될 진각 100년을 향해 ‘진각 수행의 대중적 이해와 실천’이라는 두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추념불사에는 성초 총인예하를 비롯한 경혜, 경정, 수성 정사 등 원로스승들과 교육원장 경당 정사 등 3백여명이 동참해 회당대중사 열반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총인원 내 탑주심인당과 진각성존 회당대중사 열반성지 불승심인당을 비롯해 미국 LA 불광심인당 등 국내외 각 심인당에서도 51주기 열반절불사를 일제히 봉행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진각종은 10월 16일 진각문화전승원에서 회당대중사 열반 51주기 추념불사를 봉행했다.

‘거대 여당’ 탄생... 獨走의 ‘명암’ 이 보인다

조계종 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남긴 것들

조계종 종도들의 민의는 현 총무원 집행부를 선택했다. 10월 16일 열린 조계종 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에서 ‘거대 여당’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남긴 숙제도 적지 않다. 늘 보여왔던 구태들이 여전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종책적 이슈는 전혀 없었다. 직할교구에 출마한 가섭 스님과 해인사에서 출마한 성공 스님은 종책 자립을 발표하고 선거운동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셨다. 종책보다는 문중 등 다른 요소들이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선거 결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이끄는 종책모임 불교광장이 45석으로 압승했다. 반면 집행부 견제 나섰던 삼화도량은 16석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여권 세력으로 분류된 무량회는 10석을 지켰다.

이에 따라 조계종 총무원 34대 집행부가 추진하는 종무행정에 대한 입법 작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불교광장과 무량회가 연대를 할 경우 종회 개정이 가능한 의석 수인 55석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불교광장 45석 · 삼화도량 16석

광장의 압승, 개헌 의석까지 확보

‘여대야소’로 비판 · 견제 퇴색 우려

불교광장 “향후 활동에 책임 느껴”

대표성 잃은 직능직 의원 선출부터

관음사 선거인단 논란 등 구태 여전

선거 제도 · 종도 인식 개선 시급

매회 선거마다 지적되는 대표성을 잃은 직능직 선출도 여전했다. 중앙종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직능직 제도가 계파간 나눠먹기로 변질됐다. 실제 이번 직능직 종회의원에 지원한 후보 21명 중 강원과 울원에 지원한 스님은 아무도 없었고 대신 문화나 복지 등 분류가 애매한 분야에 편중됐다.

이런 직능직 종회의원에 대한 자격 조건이나 선출 방식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백상도량 측 직능직 후보로 나선 이암 스님의 탈락이 논란이 되는 것도 낙선자 표기 투표로 선출을 진행해서다. 삼화도량은 당

장 반발하고 나섰고, 당사자 이암 스님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효 소청을 냈다.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회법 제소도 불사할 것으로 알려져 선거 후유증까지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 관음사는 선거를 앞두고 미입주 사찰을 포함한 9곳에 주지를 무더기로 임명하고 제2교구 용주사에 사찰을 이관 받아 문제가 됐다.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기 위한 신중 편법이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명암과 존자암을 선거인단에 제외시켰고, 관음사 주지 성호 스님을 후보부에 조사를 의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회의에서 “문제가 보이는 데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대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 때문에 선거법을 개정해 거주요건을 강화했음에도 신중 편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성회풍 · 막말 · 폭력 · 음주 등으로 자격 미달 후보로 분류돼 불교시민단체들의 후보 퇴진 요구가 이어진 후보 중 상당수가 종회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법승 스님은 “이번 중앙종회의원 선거에서도 종단 선거의 구태를 여실히 보여줬다”면서 “직능직 중앙종회의원이 더 이상 정치세력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 대체는 안된다. 전문 분야를 좀 더 세분화하고 전문가가 종회에 입성해 활동할 수 있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재가 분야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불교광장의 독주에 대해서는 “종단에 필요한 입법활동으로 긍정적인 개혁을 이끌었으면 한다”면서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을 해결하면 종도들의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거대 여당으로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불교광장은 더 긴장해서 종회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제16대 중앙종회의원 당선자 현황 직선직

교구	당선자
직할교구	우봉, 법원, 현민, 덕현 스님
2교구 용주사	성무, 환적 스님
3교구 신홍사	정념, 삼조 스님(무투표 당선)
4교구 월정사	삼해, 설암 스님(무투표 당선)
5교구 법주사	정명, 원경 스님
6교구 마곡사	선일, 제민 스님
7교구 수덕사	주경, 정범 스님(무투표 당선)
8교구 직지사	장명, 범보 스님
9교구 동화사	지원, 선광 스님
10교구 관음사	관, 덕조 스님(무투표 당선)
11교구 불국사	종민, 정수 스님(무투표 당선)
12교구 해인사	제정, 원대, 도현 스님
13교구 쌍계사	영담, 명진 스님(무투표 당선)
14교구 범어사	무관, 정오 스님(무투표 당선)
15교구 통도사	진각, 오심 스님(무투표 당선)
16교구 고운사	자현, 동운 스님(무투표 당선)
17교구 금산사	원행, 덕산 스님(무투표 당선)
18교구 백양사	만당, 광진 스님(무투표 당선)
19교구 화엄사	종성, 진성 스님(무투표 당선)
21교구 송광사	연광, 자공 스님
22교구 대흥사	법원, 월우 스님
23교구 관음사	합결, 현인 스님
24교구 선운사	경우, 태호 스님(무투표 당선)
25교구 봉선사	동산, 해송 스님

직능 및 비구니

분야	당선자
율원	해사, 법상 스님
선원	호산, 심우 스님
강원	범해, 진화 스님
교육	영배, 각림 스님
포교	성형, 수암 스님
사회	지홍, 직광 스님
복지	정도, 탄원 스님
문화	정산, 도건 스님
법제	초경, 해초 스님
행정	성문, 지현 스님
비구니	계환, 지홍, 지성, 명준, 도수, 모주, 해법, 희우, 혜정 스님

관음종 내년 창종 50년, 개산조 선양 나서

선암사 · 낙산 묘각사 등서 태허 스님 기념 행사 잇달아

10월 27일 태허 스님 사리친견

‘한국불교전승’ 주제 세미나도

11월 1일 부도 · 탐비 봉안법회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이 2015년 창종 50주년을 앞두고 개산조 태허 스님의 사상을 선양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관음종은 10월 27일 낙산 묘각사 대불보전에서 ‘태허 스님 사리친견 법회’와 학술대회를 여는데 이어 11월 1일 오후 2시 순천 선암사에서 ‘태허 스님 탐비 · 부도 봉안법회’를 봉행한다. 관음종은 창종 50주년을 맞아 조계종과 태고종의 협조를 통해 순천 선암사에 태허 스님 탐비 및 부도를 봉안한다.

태허 스님 사리친견법회와 함께 열리는 기념학술대회는 ‘한국불교문화의 전승과 실제’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평래 전 충남대 교수의 ‘법화경과 화엄경의 원용일체 사상’ 기초발제에 이

어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의 ‘전통사경의 역사와 전개’, △김재권 능인불교대학원대학 교수의 ‘법신사상에서 본 법화경과 화엄경’, △정영식 동국대 교수의 ‘보살운동에서 본 법화경과 화엄경’ △차차석 동방대학원대학 교수의 ‘수행의 행법에서 본 법화경’ △신규탁 연세대 교수의 ‘화엄대강백 경운선사와 법화행자 태허대법사’, △도업 스님의 ‘화엄의 수행론’ △버스웰 교수의 ‘불교위경 연구’가 각각 발표된다.

홍파 스님은 “창종 50주년을 즈음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학문적으로 조명하고, 관

음종을 개산하신 태허 조사에 대한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태허 조사의 탐비와 부도를 순천 선암사에 봉안하기 전 스님의 사리를 마지막으로 친견하며, 그 가르침을 되새기는 이번 행사에 사부대중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음종 개산조 태허 스님은 1905년 태어나 1930년 선암사에서 출가해 경운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소요산 백운암에서 천일 안거를, 백화산 백화암에서 6년 안거를 마치고 일승불교현정회를 설립한 후 현 탑골공원에서 2년간 야외설법을 하기도 했다.

1965년 관음종을 창종해 초대 종정으로 추대됐다. 1971년 정부로부터 보국훈장을 받았으며, 1979년 법랍 50년, 세남 75세로 입적했다. 노덕현 기자

東國 Forum 2014

풍요로운 계절을 맞이하며 宅內平安하심과 뜻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동국대학교 총동창회는 전체 동문사회의 친목과 국가사회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례적으로 개최해 온 ‘東國포럼’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셔서 자리를 더욱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4. 10. 22 (수) AM 07:30 ~ 09:00
- 장 소 :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서울시청 뒤편)
- 주 제 : “한국 정치의 현실과 미래”
- 연 사 :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경기도지사)
- 주 최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 문의처 : 02)733-3991, Fax. 02)733-3992

2014년 10월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장 박종윤 배상